백금남 소설

# 아디카야의 검

22 뉴델리에서 며칠 ③



▶한줄 요약

수도에 매진하던 난타는 손타라를 만나 마침내 파계를 하게 된다. 파계 현장을 들킨 손타라는 제석천왕의 검을 뽑아 난타를 찌르고 자신의 목을 찌른다. 보름달이 뜬 날, 법상에 오른 붓다는 한 자루의 칼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검을 지혜의 검, '아디카야'라고 했다.

## 정체 드러내는 지혜의 검 '아디카야'

그래도 이석원은 머리를 내젓다가 자꾸만 귀찮게 하자 어느 날 난타가 남겼다는 칼을 찾아 떠나버리고 말았다.

정우 스님은 떠나는 이석원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대의 칼을 찾아오십시오. 그 칼이 주인을 만나 스스로 몸을 열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이오?

-왜냐면 우리들의 법만이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돌아와 불법을 망치는 마구니들을 그 칼로 베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조실스님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입을 열었다.

-정우 스님은 그길로 한국으로 떠났는데 아마 지금도 이석원을 개조로 하여 종단 설립을 꿈꾸고 있을 게요.

-그럼 금어스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겠군요?

-알고 있소. 내가 알렸으니까. 사정이 있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하오. '그분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헤어지지 말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이석원이 사라진 후 어머니를 잃은 정우 스님의 딸 미순이도 어딘가로 떠나버렸다. 이석원을 찾아 스리나가르로 갔다는 말도 있고 정우 스님이 살았을 때 탁발한 곡물을 보시하던 나환자촌 봉사원으로 갔다는 말도 있었다.

조실이 말을 끝내고 쩝 하고 혀를 찼다. 나는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모르겠구나. 정말 모르겠구나. 돌아와 다시 이석원의 글을 읽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 후였다. 역시 글은 읽기가 쉽지 않았고 성가셨지만, 문맥을 만들어가며 끈질기게 읽어나갔다.

### 아디카야의 검이라 하여라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난 난타는 그 후 오로지 자신의 완성을 위해 수도에 매진했다. 속세의 손타라가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견성의 길은 멀고 멀었다. 눈을 감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으면 자연히 생각은 손타라에게로 달려갔다.

그때까지도 몰랐다. 손타라가 기다리다 못해 교단으로 자신을 찾아올 줄. 붓다를 찾아온 궁의 친인척 중에 그녀가 끼어 있었다. 난타는 미칠 듯이 반가웠다. 속세의 남편을 마주 쳐다보는 손타라는 눈을 내리깔고 눈물만 흘렸다.

저녁 공양을 끝내고 난타는 뜰로 나아갔다. 기회를 엿보던 손타라가 다가왔다. 난타는 누가 볼 것이 두려워 그녀를 끌고 구석으로 피했다. 그녀의 냄새와 손길에 난타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자연히 두 사람은 부둥켜안았고 저질러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파계였다.

수양이 덜 된 난타로서는 한 번 그녀를 탐하자 색욕은 용서가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틈만 나면 그녀를 찾았고 그때마다 두 사람은 은밀한 사랑을 나누었다.

-그대의 얼굴에서 화장이 마르기 전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미안하오. 미안하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십시다.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구려.

-도대체 왜 붓다는 이 세상에 나타나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고 이렇게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 고통을 참느니 그를 죽여 버리고 싶어요.

-손타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오!

그녀는 착하고 아름다웠지만 강인하기로 소문난 무장 집안의 딸이었다. 강인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여리디여려 보여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물러서지 않는 여자였다.

-가십시다. 멀리. 붓다가 우리를 찾지 못할 곳으로. 아무도 우리를 몰라보는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십시다.

-나도 그러고 싶소. 이곳을 뛰쳐나가 그대와 함께 돌아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소.

붓다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붓다는 순식간에 그들을 대중이 운집한 대강당으로 옮겨 놓았다. 난타가 잠시 정신을 놓았다가 이상한 기운에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랐다. 붓다를 중심으로 한 대중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붓다의 십대 제자 중에서 계율을 맡은 우바리가 눈을 부릅뜨고 다가왔다. 난타는 손타라를 밀어 버리고 벌떡 일어나 앉았는데 우바리의 노기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범행을 닦는 수행승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손타라가 이를 뽀드득 갈았다. 이를 갈던 손타라가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벌거벗은 몸을 가리지도 않고 단상에 꽂힌 장검을 향해 달려들었다. 바로 불법을 호위하는 제석천왕의 검이었다.

-어찌 우리들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능멸하십니까? 그러고도 붓다라 할 수 있습니까? 그대의 가르침은 사랑이 아닌가요? 이것이 중생을 향한 그대의 사랑인가요?

검을 빼 들은 손타라가 붓다를 향해 겨누며 소리쳤다. 검은 머리가 이마를 덮었고 머리카락 몇 올이 입가에 물려 있었다. 붓다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붓다가 말이 없자 손타라가 다시 소리쳤다.

-우리들의 사랑 위에 더 큰 사랑이 있다고 외치는 이 위선자야. 나는 아직 우리들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본 적이 없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제자의 미망을 팔아 자신의 위세를 일삼는 만행보다는 크다!



비로소 붓다가 눈을 떴다. 벌거벗은 손타라의 칼끝이 자신의 정수리에 닿아 있었다.

언제였던가? 꼭 한 번 이런 적이 있었다. 문수사리. 그가 겨눈 칼끝. 지은 업에 따라 지옥행이 기다리고 있다고 오백 보살들에게 설하고 있을 때 중생을 괴롭히지 말라며 칼을 들고 일어섰던 문수사리.

아아, 그날처럼 이 아이도 미물이 곧 불성(佛性)임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나….

-불성이 닦이지 않으면 미물은 자신들의 사랑만 안다. 최고의 사랑이 이 우주에 가득 찼음에도 그것을 깨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미물의 작은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제 세상은 보았을 것이다. 너희들로 인해서 미물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공평한 것이다.

-더러운 이상주의자. 세상을 구하겠다는 신심은 참으로 위대하지만 하나도 감동스럽지 않다. 내 영원히 미물의 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미물로 남을 것이다. 저 산야에 이름 없는 꽃의 향기로 이 세상이 있음을 아셔야지.

-하찮은 산야의 꽃 한 송이도 이 우주와의 교접을 통해 꽃을 피웠느니라. 이제 우주와의 정사를 꿈꿔야 할 것이니라. 그것이 이상주의자의 이상인 것을!

-당신이 뭐라고 한들 내게는 악마의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희망이 없다면 죽음이지.

그녀가 칼끝을 돌려 난타의 가슴을 찔렀다. 난타가 넘어지자 그녀는 칼로 자기 목을 긋고 넘어졌다.

보름이 넘어도 붓다가 든 향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제자들과 대중들은 난타와 손타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다. 붓다는 난타를 깨우치기 위해 그들을 대강당으로 옮겨 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을 죽여 놓았으니 중생 제도에 허점이 있다고들 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무장의 딸답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래도 향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바이샤칼의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 법상에 오른 붓다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 손타라가 스스로 목을 벤 칼이었다.

붓다가 대중들에게 물었다.

-이게 무엇이냐?

-칼 아닙니까.

대중 속에서 어이없다는 대답이 터져 나왔다.

-이것이 나의 법이다. 일체를 끊어낼 때 비로소 나의 법이 보이리라. 집착을 보면 집착을 잘라내고 욕망을 보면 욕망을 잘라내고 사랑을 느낀다면 사랑마저 잘라낸다. 그때 나의 법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함에 이 칼을 지혜의 검 아디카야라 부른다. 그렇게 말하고 붓다는 아난을 불러 이것이 나의 법이니 소중히 간직하라 일렀다.

### 아이슈 무쿠암 행

1

글을 읽다가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앞산은 좀 맑아 보였으나 비안개는 물러가지 않았다. 무슨 꿈을 꾸었더라? 난타, 손타라, 붓다….

그들이 함께 어울려 영화처럼 꿈자리를 어지럽혔던 것 같았다. 이제 그 칼의 존재를 알 것 같았고 그런 칼을 찾으러 갔다는 이석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종일 마음이 들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노트를 찾아 손타라가 죽는 장면을 찾아 읽고 또 읽었다. 손타라와 붓다의 갈등. 영원히 미물로 남을지라도 사랑을 갈구했던 손타라. 그들의 사랑을 통해 참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붓다….

우계의 비가 그렇듯이 단조롭고 지루한 비가 그치질 않았다. 비가 점점 더 심해져 죽창에 빗물이 튀겨 들어오자 송 서화가가 걸레를 가져다 대었다. 문을 열어보면 하늘 전체가 짙고 낮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를 보고 있자니 이상스런 상념이 나를 사로잡았다. 대체로 알맹이가 잡히지 않는 어설픈 상념이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도 모르게 어젯밤의 꿈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았다. 식사를 끝내고 벽을 기대고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낙수 소리가 정겨웠다. 양철집이 보였다. 빗소리가 다닥다닥 들리던 집. 앞으로 개울물이 흐르고 가시 달린 탱자나무로 울이 쳐진 집. 마당에 디딤돌이 놓였고 파초와 감나무가 있었던 집. 아아, 그곳은 나의 집이었다. 내 뼈가 여물던 집이었다. 내 꿈이 자라던 고향 집이었다.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려 뒷산으로 오르면 돌돌 물레 돌아가던 소리.

-할머니, 때가 어느 땐데 모시를 짜요. 시장에 가면 널렸어요. 좋은 모시가 얼마나 싼데….

그래도 할머니는 물레를 돌렸다.

-에미야, 나 죽거든 내가 짠 모시로 싸다오. 아휴 이 모시 냄새!

곱게 미소 짓던 어머니. 모시 집으로 18살에 시집와 시어머니와 평생을 모시를 짰던 어머니.

눈을 떴을 때 송 서화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러다가 이석원을 만나지 못하고 성물이 있다는 곳으로 가보지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방안을 서성거렸다. 느닷없는 예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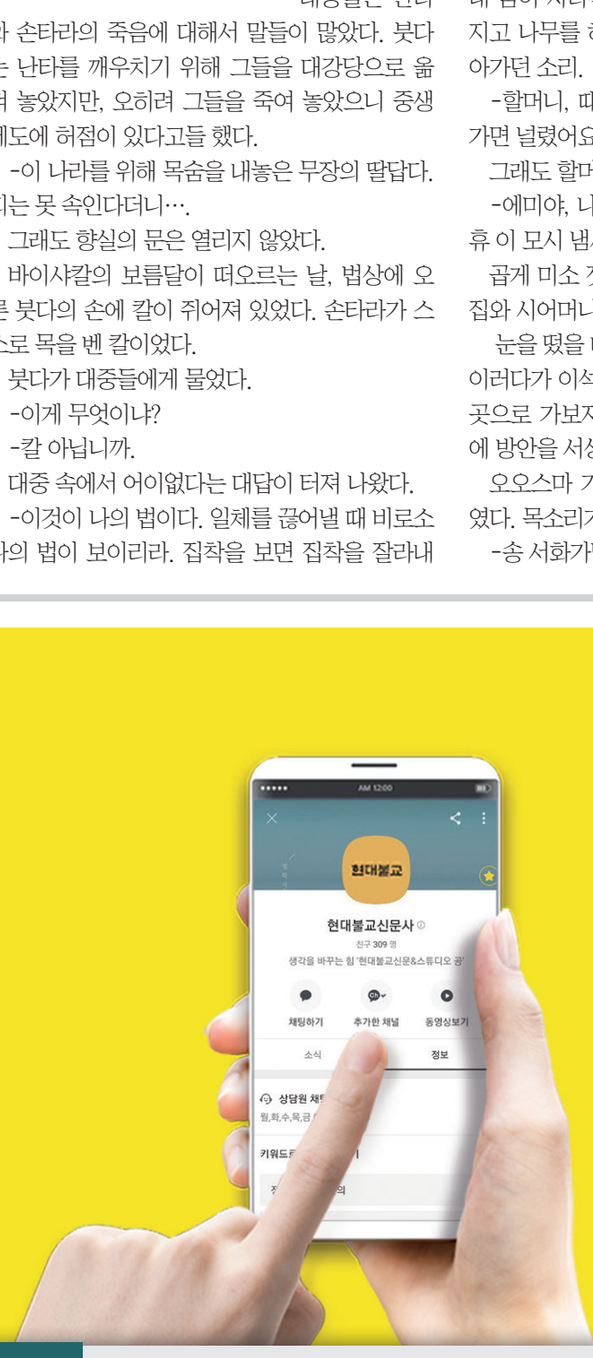
오오스마 기자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잠시 뒤였다. 목소리가 밝았다.

-송 서화가님은 어디 나가셨는가요?〈계속〉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